우물 밑에 똥 싸기 (트와인 씬작업)

#1 (전체 그래픽)

2050년… 전 세계는 지옥이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비가 되었고,

몇 몇 생존자만이 무리지어 간신히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마저도 상당수는 인간성을 상실한 채 존재하기만 했다.

(계속읽기)

#2 (금섬 기본, 할머니 기본)

이런 지옥 속에서 금섬(여,16)도 살고 있다.

이유를 알 수 없게 고아가 된 금섬을 거둬준 할머니(여,79)와 함께.

그런데 어느날…

(계속읽기)

#3(그래픽)

어김없이 먹을 것을 찾아 거리를 헤매던 금섬과 할머니는 숨어있던 좀비의 급습을 받게된다.

능숙하게 좀비를 피하는 금섬과 달리 할머니는 넘어져서 좀비에게 물리게 된다.

하지만 금섬은 할머니에게 붙어있던 좀비를 해치우고 영리하게 맨홀 뚜껑 밑으로 숨는다.

(계속읽기)

#4(금섬 눈물, 앓는 할머니)

금섬 : 할머니 정신차려봐!!!

할머니 : 금섬아…

금섬 : 할머니!!!

할머니 : 괜찮아… 이 할미는 살만치 살았어… 금섬이를 만나서 이 할미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그래도 행복했다…

금섬 : 할머니!!! 그런 말 하지마!!! 내가 들었어!!!! 좀비에 물려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대!!!

할머니 : 금섬아… 사실 이 할미도 알고 있다…

(궁금하면 계속읽기)

#5(금섬 눈물, 앓는 할머니)

금섬 : 할머니가 방법을 알고 있다고 ????!!!!!!!

할머니 : ... 니ㅓㄹ 맹ㄹ..

금섬 : 뭐라고??

할머니 : … ㄴ니어리;ㅇ나니ㅏ어리ㅏ

금섬 : 할머니..!!!!

할머니 : ㅇ... 우..ㅁ..ㅜㄹ...로...가……….

의식을 잃는 할머니…

금섬 : 할머니!! 할머니!!!!

망연자실한 금섬… 마음을 추스린다…

그리고 할머니가 한 말을 되새긴다…

“우물…?”

“보통 좀비에 물리고 완전히 좀비가 되기까지 3일이 걸려…

그때까지 우물에 가서 할머니를 치료할 방법을 찾겠어!”

(계속읽기)

#6 (그래픽)

그날 이후 금섬은 우물이 있을 법한 곳을 찾아 온 동네를 뒤진다.

그리고 우연히 다 쓰러져 가는 한옥 집에 덩그러니 서 있는 우물을 발견하는데.

스산한 분위기…

저건가?!

(계속읽기)

#7(그래픽), (살짝 놀란 금섬)

우물로 다가가는 금섬.

우물은 낡은 판자들로 막혀있다.

그리고 그 위엔 시들지 않는 꽃이 있다.

“이런 세상에도 꽃이 핀다니…”

금섬, 자기도 모르게 꽃으로 손이 간다. 그리고 꽃이 든 화분을 코로 가져간다.

꽃 향기를 맡는 금섬.

그 때 갑자기 거친 기계음과 함께 눈 앞에 섬광이 스친다.

“이게 뭐지? 무슨일이지?”

(계속읽기)

#8. (살짝 놀란 금섬 혹은 많이 놀란 금섬)

당황한 금섬이 눈을 비비며 주변을 두리번 거리는데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 소리가 들린다.

금섬은 정신을 차리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곳에 매끄럽고 빛나는 털을 가진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다.

“너 당장 그 화분을 내려 놓지 못해?!”

“고양이가 말을??!!!”

(계속읽기)

#9(살짝 놀란 금섬)

“고양이? 나에게 감히 그딴 동물을 갖다 붙이다니. 하찮은 인간따위가!”

“ 넌 누구니?”

“ 난 이 집을 300년동안 지켰던 수호신 빼꼼이다. 내 앞에 예를 갖추지는 못할 망정 내 단잠을 깨우고 우물의 열쇠를 함부로 만지다니!”

“ 우물의 열쇠?”

“ 네 놈이 아직도 들고 있는 그 화분 말이다!”

금섬, 당황하지만 할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고분고분 행동한다.

“죄송해요, 빼꼼님. (기본 금섬에서 땀추가?)

저희 할머니가 좀비에 물렸는데… 마지막에 우물로 가보라고 했어요.

3일 안에 치료제를 꼭 찾아야 해요!!

저는 할머니를 꼭 살리고싶어요!!”

“어차피 나이가 들면 다 죽는 것을 뭣하러 살리려 하냐?”

“제 친할머니는 아니지만 저에겐 하나뿐인 가족이에요!!!

저에겐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라구요!!! (긴장->놀람 입모양 수정)

그러니까 그 방법을 알고 계시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나는 그건 모르겠고!

네 놈이 신성한 우물을 열어 버렸으니 책임을 져라!”

“무슨 책임??’

(계속읽기)

#10(빼곰과 그래픽)

빼꼼, 우물과 얽힌 최선생의 이야기를 말한다.

이 땅에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신비의 유물이 있었다. 이 유물에는 세상을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힘이 있었지. 사람들은 이 유물의 존재를 몰랐어. 오로지 나라를 처음 세운 자와 제사장만이 ‘약속된 땅''에 감춰놓았지. 유물은 그곳에서 제사장의 후손들에 의해 대대로 관리되어 왔어.

계속읽기

#11 (빼꼼과 그래픽)

그러던 중, 이 땅에 침입한 일본이 유물의 존재를 알아버린 거야. 그들의 지배 하에 유물은 시도때도 없이 도굴당할 위험에 처했다. 하지만 그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어. 제사장들이 필사적으로 지켰던 거지. 그리고 드디어 그 위협이 끝난 줄만 알았던 해방의 날, 일본은 자기네만 망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제사장을 납치했어. 그를 잔인하게 고문하여 유물을 손아귀에 넣고, 파괴해버리려고 했던 거야. 일본놈들의 고문에 시달렸던 마지막 제사장. 그 분이 바로 최선생이시다.

계속읽기

#12. (빼꼼과 그래픽)

최선생은 끈질긴 고초에도 ‘약속의 땅'을 밝히지 않았어. 하지만 매우 불안해 하셨지.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유물을 약속의 땅에서 옮겨와 이 우물에 묻고 마법진 결계를 걸어버렸어. 놈들이 영원히 찾을 수 없게. 그 후, 세월은 무섭게 흘러 어느덧 2020년이 되었다. 세월만큼이나 최선생도 나이를 드셨어. 하지만 우물 깊은 곳에 봉인된 유물은 변함없이 신비로운 힘으로 사람들을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지켜냈어. 그런데 어느날.

계속

#13(빼꼼과 그래픽)

최선생은 뉴스에서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 괴물처럼 변해버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무는 것을 보게 된 거야. 이건 필시 유물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는 직감이 든 최선생은 한 걸음에 우물로 달려갔어. 오랫동안 닫혀있던 뚜껑을 여는 순간. 밑바닥까지 깨끗하게 보였던 우물물이 검은 흙탕물로 변해 있었지. 급하게 그 연유를 찾아보니 우물의 근원이 되었던 물길에 건물이 세워졌던 사실을 뒤 늦게 알게 된 거야. 건물은 큰 말뚝처럼 물길의 흐름을 막고 서 있었어. 우물물은 그 안에서 썩고 말라가는 중이었지.

계속

#14(놀란 빼꼼과 그래픽)

“ 마법을 걸어놨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지? 결계가 오염된 물에 풀려버린 건가? 이럴수가…”

충격을 받은 최선생은 쓰러졌어. 그 사이 이 세상은 원인모를 바이러스의 급속한 전파로 인해 좀비들로 넘쳐나게 되었다. 결국 좀비들은 최선생 댁까지 습격했지. 좀비들이 습격하기 직전, 죽음을 예감한 최선생은 내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다. 어떻게든 물을 맑게 해 유물 지키고 다음 제사장을 뽑으라고. 자식이 없었던 그에겐 직책을 넘겨 받을 새로운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지.

#15. (약간 놀란 금섬, 짜증 금섬(긴장금섬과 같음))

“ 자, 인간. 내가 왜 이렇게까지 긴 이야기를 하는지 이제 슬슬 감이 오나? 물을 다시 맑게 해 유물의 신비한 힘을 되찾는 것. 그것이 너의 책임이란 거야!”

“ 아니 왜 그걸 제가 해야 한다는 거죠?”

“이봐, 내 임무는 최선생의 유언을 실행할 수 있는 인간을 찾는 것 뿐이야. 그놈의 인간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이 우물 곁을 떠나지 못하고 기다렸다고! 근데 너가 우물을 열었자나? 이게 운명이 아니고서야 뭐 겠냐?”

“ 아니, 저는 그저 할머니의 치료제만 찾으면 되는데…제발, 할머니가 곧 좀비가 될지도 모른다고요!”

“ 자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물로 들어가!”

이내 빼꼼은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그러자 금섬의 몸이 두둥실 떠오르고, 몸을 가누지 못해 허우적 거리는 금섬. 빼꼼의 꼬리가 휙 하며 아래로 치닫는 순간, 금섬은 우물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쿵!